월운 스님에게 듣는 **경전이야기** <20>

공부 안하면 교단부흥도 못한다

유교제자(遺敎弟子)1

(732호에 이어) 유교제자(遺敎弟子)란 부처님께서 떠나신 뒤에 태어나서 부처님께서 남기신 법맥(法脈)을 이어나가는 자랑스러운 제자라는 점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불법의 씨앗을 망가뜨리는 불효한 후손이 될 위험성도 동시에 지니고 태어난 세대(世代)이다. 이는 마치 부모를 일찍 잃은 고아(孤兒)들이 혼자 살아나가는 것처럼 자력으로 고달프게 살아가야 할 운명도 짊어지고 있지만 개중에 성공하여 가문을 크게 되살리면, 이른바 극가지자(克家之子)라 하여 그 광영이 천추(千秋)에 빛날 수도 있는 것과 같다.

어리석음에 끄달리지 않으면 그 순간이 곧 부처

콩심은데 콩나는게 진리… 방법 옳아야 결과 좋아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지 2553년, 이 땅에 불교가 들어온 지 1600여년, 우리 선배(先輩)님들께서 숱한 우여곡절(迂餘曲折)을 겪으면서도 불교가 사회의 자랑거리로 인정받아 왔었는데 근자(近者)에 와서는 이런저런 사유 때문에 민초(民草)들의 인식(認識)에서 차츰 멀어지고 있다. 아니, 멀어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미 멀어져버렸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나의 생각으로는 변화하는 사회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 하나가 그 전체일 것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왕정체제(王政體制)에서 살아왔다. 왕정체제에서는 뛰어난 도인 하나만 나와서 왕의 신임을 받아내면 그 다음의 일은 저절로 풀리는 것이 상례였다. 그래서 승속의 풍속이 자연스럽게 자기의 능력과 취미에 따라 노력하다가 다행히 하루아침에 힘 있는 분의 눈에 띄면 성사(成事)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례였다. 그런 까닭에 삶의 현장에서 뒤처진 민초들의 눈물을 닦아 주는 일은 거의 폐기(廢棄)한 채 살아왔다.

그러나 누가 알았으랴. 지난날 우리가 모른 체했던 그들이 세월 따라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는, 지난날 자신들을 위로해 함께 눈물을 흘려주었던 분의 은공을 잊을 수 없어 그들을 따라갔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약세교단(弱勢敎團)으로 전락했다. 그것을 만회(挽回)하기 위해 2000만 불자라는 구호(口號)를 내세워보았으나 별 약발이 없다. 교단약세현상은 말이 필요 없다. 사찰마다 출가자와 신도들의 연령은 상한선을 향해 치솟고, 인원수는 하한선에 근접하고 있다.

개중에도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단의 이런 상황에 대하여 아무도 언급하는 이가 없다는 점이다. 마치 중병에 걸린 이가 자신이 환자라는 것을 전혀 모르거나 아니면 도리어 자신이 건강하다고 외치는 것과 같이 말이다. 하기야 내가 잘못 알고 미리 호들갑을 떠는지도 모를 일이니, 그렇다면 천만 다행이겠으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기에 감히 다음과 같이 몇 말씀 제안하노니, 친애하는 불자여러분 지금서 계시는 자리에서 자기공부를 시험한다는 생각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 보시기 바란다.

만에 하나 이 공부에서 힘을 얻는다면 자신의 공부에 크게 진전이 있음은 물론이요, 쇠약해가는 교세를 다시 부흥시키는 첫걸음을 내딛은 자랑스러운 유교제자의 한 분일 것이다.

첫째, 불교인은 부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 부처님은 인간 스스로가 어리석음에 끄달리지 않으면 그 순간이 곧 부처이니 항상 어리석음을 물리치는 공부를 하라 하셨을 뿐 신이 아니시다.

둘째, 불교인은 진리를 어기지 않아야 한다. 콩 심은 데 콩 나는 법칙이 진리다. 복되게 살려면 반드시 바른 방법으로 그 준비를 하면 분명 변함없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 불교인은 벽돌을 쌓듯이 생활해야 한다. 생활이란, 누군가와 어울려서 산다는 뜻으로서 마치 벽돌을 쌓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다.

봉선사 조실

연기의 근본 실상은 '뭇 생명들의 마음'

정화 스님 '대승기신론' 상세히 풀이… 마음의 비움과 나눔 강조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연기각성(緣起覺性)에서 한 생명이며 낱낱 생명 그대로가 우주의 생명이라는 믿음, 곧 대승(大乘)을 믿는 마음이 생기게 할 수 있을까?'

간결한 문장 속에 많은 뜻이 담겨있기에 읽어도 모른다하여 '깜깜 기신' 이란 별칭이 붙은 <대승기신론>. 서울 길상사 수련원장 정화 스님이 불교 논서의 백미인 <대승기신론>을 쉬운 우리말로 옮기고 자상하고 상세한 풀이를 더해 두 권의 책으로 펴냈다.

기원 2세기 초(또는 중엽) 마명 스님이 저술한 <대승기신론>은 대승 경전에 설해 있는 모든 사상을 회통(會通)해 체계적인 논리를 세워 대승의 본질을 밝혀놓은 문답식 불교 논문. 그 내용은 예로부터 일심(一心), 이문(二門), 삼대(三大), 사신(四信), 오행(五行)으로 요약해 왔다. 이 논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일심을 진여문(眞如門)과 생멸문(生滅門)으로 나눠 설명하고, 또한 일심이 가진 특성을 체(體) 상(相) 용(用) 삼대의 이론으로 전개해 궁극적으로 대승에의 믿음을 일으키게 하고 나아가 실천적 행을 닦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책에서 정화 스님은 "<대승기신론>에서는 연기(緣起)라는 뜻을 '마음'으로 대체하여 쓰고 있기 때문에 연기의 근본 실상이 '뭇 생명들의 마음'이 된다. 뭇 생명들의 마음이 법계를 뜻하는 '큰 수레' 곧 '대승(大乘)'이라는 것이

다"라고 했다. 스님은 또 법계 전체가 중생의 마음이며, 좁쌀보다 작은 욕망에 갇혀 헤어나지 못하는 그 마음 그대로 법계의 인연인 줄 보고 아는 순간 욕망에 갇힌 마음이 아니라 한계 속에서 한계를 벗어난 '큰마음'이 된다고 했다. 마음은 모습마다 그 자체로 세간과 출세간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있기에 이것이 <대승기신론>을 관통하는 중심 주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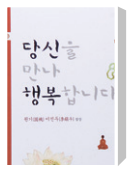
이러한 기신론의 알쏭달쏭한 가르침을 내면화한 정화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마음 씀씀이 하나하나에 다 들어 있다는 것을 깊이 믿고 스스로의 마음을 잘 살펴 알아차리라"고 당부한다. 마음 살핌을 통해 분별된 나가 사라진 '마음 비움'의 자리에 비로소 지혜가 드러나며 한없이 커진 생명들의 인연을 나로 삼는 '마음 나눔'인 자비심도 실천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마명 스님 당시 보다 오늘날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믿음이며 실천이 아닐 수 없다.

길상사 일요가족법회에서 불교교리를,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연구공간 수유+너머'에서 <육조단경>을 강의하고 있는 스님은 그동안 <금강경> <반야심경>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생활속의 유식 30송> <법성게> <중론> 등을 쉽게 풀어썼다.

법공양 | 각권 2만2000원

김성우 기자

불교계 크고 작은 일들의 뒷얘기



당신을 만나 행복합니다
이진두 지음
염화실 펴냄
1만2000원

저자는 서울대 법대를 나온 엘리트로 출가를 했었다. 그것도 시대를 호령하던 성철 스님 문하로의 출가였다. 그리고 다시 세속으로 나와 언론인의 길을 걸었다. 수행자의 길과 언론인의 길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작게는 수백가지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크게는 '그게 그것'이라고 할 것이다.

문제는 두 길을 걸은 사람의 눈에 세상은 어떻게 비치고 있는가에 있다. 저자의 짤막한 글들에 담긴 서정과 비판 그리고 감성과 애증이 삶의 편린들을 쓰다듬는다. 불교신문의 칼럼 코너에 실었던 글들이라 최근 몇 년(2002~2008년) 사이에 불교계에서 일어난 이런저런 일들을 되새김질할 수 있다. 물론 저자의 눈에 비친 일들이 저자의 마음을 따라 정제되기도 하고 폭발하기도 하고 상징화되기도 했다.

그래도 저자를 통해 새로운 사건의 두시 이야기들을 알게되고 '큰스님'들의 마음 자락을 헤아리게도 되는 재미는 불교전문 칼럼을 읽는 프리미엄이라 할 것이다

임연태 기자

성불의 길 닦는 무한한 나눔 강조

황금의 수레바퀴
한탑 스님 지음
본북 펴냄
1만2000원

고해(苦海). 왜 인생을 고통이라고 말하는가?

문사수법회 회주로서 호남권에서 활발하게 법회활동을 하고 있는 한탑스님(담양 정토원 회주)은 '나'와 '너'라는 상대적 개념을 벗어나지 못하는데서 고통이 비롯된다고 역설한다.

스님은 '지혜와 나눔의 열 가지 지혜'를 부제로 한 <황금의 수레바퀴>를 통해 생존경쟁, 물질만능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다툼을 떠나 상생과 평화에 이르는 길을 제시한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나의 생명과 모든 생명의 가치가 같다'는 데서 출발한다"는 스님은 육신을 자기 생명이라고 착각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또 부처님이 다로 계셔서 불쌍한 중생을 제도해 줄 것이라고 믿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여래가 제도할 중생이 없다"는 <금강경>의 가르침은 이미 부처로 눈을 뜨면 부처와 중생이 다로 없다는 의미다.

이는 중생이 부처의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원력을 세우고 부단히 수행해 나가면 반드시 성불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바로 부단한 수행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경전이 <화엄경>의 '보현행원품'이다.

한탑 스님은 '나무아미타불' 정토 염불 수행에 <화엄경> '보현행원품'의 수행 근간이 있다고 말한다. '보현행원품'은 누구에게나 항상 주는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가르친다. 끊임없이 주기만할 때 비로소 무한한 안심과 행복이 온다는 것.

가장 귀한 것, 변함이 없는 것의 상징인 황금과 진리의 항상성을 상징하는 수레바퀴. 한탑 스님의 법문은 바로 황금의 수레바퀴를 우리의 생활로 접목시키는 지혜를 안내하고 있다.

임연태 기자

www.hyunbul.com으로 오세요.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깊고 깊은 연꽃 가르침	혜국	사유수
2	삼천년의 생을 지나 당신과 내가 만났습니다	성전	문학의 숲
3	아름다운 마무리	법정	문학의 숲
4	답답하면 물어라	법륜	정토
5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6	세어본 소만 존재한다	월호	운주사
7	광명진언기도법	일타, 김현준	효림
8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	법륜	정토
9	지금 여기에서 감사하라	성전	개미
10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한마음선원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www.buddhabook.co.kr
운 주 사 02)3672-7181~5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선문염송 13권
전 30권중 제 13권 출간!
전등록보다 더 많은 공안을 결집한 선문염송.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치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법회안내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정맥선원 선가귀감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2460 www.zenparadise.com

사찰 건축의 얼굴 門 "문"
확! 바꿔드립니다

홍송으로 만들어집니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조각이 섬세합니다. 문화유산이 되도록 견고합니다.
◆문짝의 종류 : 사살 꽃살문, 육살 꽃살문, 빗살문, 사천왕문 금강역사문, 33관음문, 16나한문, 동자문, 조각문 주문제작
◆1,250나한 그림책 1, 2권 - 판매금액 180,000원
◆입금계좌 : 농협 174392-56-064352 (예금주 : 이애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178-1 성불사내
◆불사상담문의 041)567-2600 / 011-421-5337
인터넷 주소창에 고건축 검색어 삽입
www.ehanok.com
목조 · PC고건축 · 사찰문 · 나한 문화재수리기능보유등록 제 1853호
한국고건축 금호 임영창 합장

거제도 총명사 아미타후불탱화

거제도 총명사 신중탱화

거제도 총명사 칠성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6-219-7180 / 011-743-5167

佛 불영TV www.불영.kr
바르고 빠른 뉴스 불영TV!
뉴스,법문,다큐 사부대중과 함께하는 불영TV!
불영TV는 사찰홍보,행사,불교 관련기업 홍보영상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인터넷방송으로서 타 매체보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한 걸음 더 다가서고자 합니다.
※ 불영TV에서 판매 중인 스님 법문 동영상 CD
◇ 원통스님 관세음보살보문품 동영상1셋트 CD30장 20만원
◇ 원순스님 원각경 동영상 1셋트 20장 CD 16만 5천원
◇ 각성스님 능가경

주요사업 안내
1.홍보영상 제작
불영TV에서의 동영상 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세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릅니다.
2.사업분야
사찰홍보,행사,개인다큐,법문 등의 동영상을 제작해 드립니다.
3.프로그램 판매
불영TV 동영상 프로그램 구입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바랍니다.
□ 문의 |
02)2236-7208 / 017-207-7208
김봉환 합장